

순창 고추장 불고기에서 순창삼합까지 지역 특화음식 개발 박차

군, 미술랭 가이드 1스타 유현수 셰프 영입... 장류 활용 '순창삼합' 개발 착수

순창군이 지역 특산품인 고추장, 된장, 간장을 활용한 특화음식 개발에 나섰다.

군은 지난해 이원일 셰프와 함께 개발한 '순창 고추장 불고기'의 성공에 힘입어 올해는 유현수 셰프와 손잡고 '순창삼합'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지난 16일 밝혔다.

작년에 선보인 '순창고추장불고기'는 순창 고추장의 깊은 맛과 현대적인 조리법의 조화로 관광객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출시 후 단기간에 4억 2천만 원의 매출을 기록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이러한 성공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미술랭 가이드 1스타' 출신인 유명한 유현수 셰프를 영입해 순창군의 대표음식인 장류(고추장, 된장, 간장)를 활용한 '순창삼합' 개발 요리를 착수했다.

군은 지난달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할 관내 5개 식당을 선별하고, 지난 14일 순창군 일련드 조리실에서 선정된 5개 식당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순창삼합' 레시피 교육과 시연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날 유현수 셰프는 '순창 청국장수육', '순창 씨간장 김치', '섬진강 고추장 장어' 새로운 세가지 메뉴를 선보였으며, 이 요리들은 순창 장류의



순창군은 지난해 이원일 셰프와 함께 개발한 '순창 고추장 불고기'의 성공에 힘입어 올해는 유현수 셰프와 손잡고 '순창삼합'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지난 16일 밝혔다. (사진=순창군청 제공)

전통적인 맛과 현대적 요리 기법의 조화를 보여 주었다.

이번 특화음식 교육에 참석한 식당 관계자들은 새로운 메뉴에 대해 호응도가 높았으며, 각자의 식당에 적용할 방법을 모색하며 큰 관심을 보였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순창삼합' 프로젝트는 우리 지역의 특산물인 고추장, 된장, 간장을 모두 활용한 순창군만의 특별한 맛을 선보이는 좋은

기회가 됐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혁신적인 음식 개발에 최선을 다해 순창군을 세계에 알리는 K-미식관광 대표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이번에 개발된 메뉴들을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순창삼합' 프로젝트는 우리 지역의 특산물인 고추장, 된장, 간장을 모두 활용한 순창군만의 특별한 맛을 선보이는 좋은

남원 추어 활용 '미꾸야 꾸이랑', 홍콩인들에 좋은 반응

남원농기센터·추어식품클러스터사업단, 홍콩 식품박람회 참여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연주)와 추어식품클러스터사업단(이하 추어사업단)은 8월 15일~19일까지 열리는 2024 홍콩 식품박람회(이하 박람회)에 참여했다.

박람회는 홍콩을 포함해 한국, 중국, 미국, 폴란드, 인도, 태국, 멕시코 등 전 세계 20여 개국, 2,000개 이상 업체가 참가해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홍보와 소통의 장으로 활용되는 아시아 대표 식품박람회다.

남원시는 추어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동부권 식품클러스터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추어사업단에서 추어탕에 국한돼 있는 추어식품을 다양한 식품군으로 확장하고, 40대 이상의 주 소비층을 전 연령대로 확대할 수 있는 신제품개발



과 홍보, 마케팅 및 산업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에는 지난 2023년 개발한 남원 추어를 활용한 신제품 꾸이랑을 업그레이드한 미꾸야 꾸이랑 2종(오리 지널, 매콤한 맛)을 선보이며, 이 제품들은 각종 어육에 추어 페이스트를 넣고 구워서 만든 것으로, 튀기지 않아 저지방 고단백 건강한 식품으로 아이

들 간식은 물론 성인의 술안주 등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어 추어사업단의 1호 해외 공략상품으로 선정됐다.

추어사업단은 이번 홍콩식품박람회를 시작으로 해외 유통채널과 업무협의를 통해 사업단에서 개발한 다양한 추어식품을 해외에 소개할 예정이며, 추어 관계자들은 "남원의 대표 식품 추어탕의 명성을 기반으로 새롭게 개발된 추어 가공식품이 해외에서도 좋은 반응을 이끌어 내면서 음식 한류, K-Food 확산에 함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시민 불편사항, 우리가 해결한다”

남원 120민원봉사대, 하반기 현장민원 운영 재개

남원시 시민소통실은 휴식기를 가졌던 120민원봉사대가 19일 금요일 8시부터 시작하여 하반기 찾아가는 현장 민원 운영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현장 민원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5회 직접 마을을 방문 △전기 △가스 △수도 △보일러 △농기계 등의 소규모 수선과 △이동빨래방 운영 △가정 방문 청소 등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사업이다.

올해에는 총 150개 마을을 선정, 상반기에는 79개 마을 1,460세대 4,953건의 불편사항을 해결하였으며, 하반기에는 71개 마을을 대상으로 취약계층의 생활 속 불편함을 최소화할 계획이며, 시민들은 일상생활 불편으로 120 봉사대의 도움이 필요할 때에는 전화



남원 120민원봉사대 찾아가는 이동빨래방 (사진=남원시청 제공)

(063-120)로 연락하면 된다.

정남훈 시민소통실장은 "120민원봉사대는 시민 불편사항을 최선에서 해결하고 있는 만큼, 항상 시민과 소통하는 현장중심 봉사정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 벼 병해충 무인항공 공동방제... 농가들 “호평”

1차 항공방제 마무리... 벼 병해충 예방에 큰 효과 2025년 도입 올해로 10년째, 노동력 부족 해결 등도

임실군이 2차에 걸쳐 추진한 벼 병해충 무인항공 공동방제가 농가들의 큰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

군은 지난 5월 29일 벼 병해충 공동방제 협의회를 통해 방제약제를 선정하고 단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동시 방제가 가능하도록 방제 기간을 설정했다.

1차는 7월 20일부터 29일까지, 2차는 8월 5일부터 14일까지 무인항공 공동방제를 실시했다.

군은 농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해결 및 농가 영농비 절감 등 병해충 방제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2015년부터 무인항공방제를 추진했다.

올해로 10년째 추진하고 있으며, 빠른 시간에 균일한 약제 살포가 가능하고 농약으로부터 농업인들의 건강도 보호할 수 있어 농가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다.

방제 시간은 바람이 적고 고온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동틀 무렵부터 10시까지 오전 방제를 원칙으로 하고 오후 방제는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하여 마을 대표와 협의하여 오후 5시 이후에 방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관내 농가들로 구성된 5개 방제법인 이 공동방제에 참여하고, 총 42대의 드론이 투입되어 방제법인별 각각 관할지역 방제를 담당했다.

군은 방제 전 방제법인 대상 방제역



량 강화를 위한 사전교육을 진행해 효율적인 방제요령 및 안전 수칙 준수 등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도록 강조했다.

특히 올해 항공방제는 읍면별 이장회의를 통한 방제계획 수립 및 마을 단위 홍보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폭염 속에도 이른 새벽부터 책임감 있고 꼼꼼한 방제가 이루어져 농가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이번 항공방제로 벼 출수 전 주요 병해충인 도열병, 환알마름병, 깨씨무늬병, 흑머나방 등 각종 병해충 예방 및 쌀 생산량 증수와 미질 향상을 위해 2차에는 영양제를 추가 지원해 방제 효과를 극대화했다.

방제 면적은 1차 2,380ha, 2차 2,364ha로 총 4,744ha를 방제했으며, 총사업비는 10억원으로 30%는 군에서 30%는 지역농협에서 지원하고 농가는 40%만 부담했다. /임실=진중영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지역 소식통

남원시, 전북자치도

안전 보행환경 공모 선정

남원시는 전북특별자치도 주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총사업비는 20억원(도비 10억원, 시비 10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남원시는 광한서로가 순항제, 월광포차 등 각종 행사·축제의 주 무대로서,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특색있는 거리 조성이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하고, 지난 5월 신청했다.

이후, 민간전문가와 전북자치도 관계자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서면심사와 발표·현장평가 등을 거쳐 1순위로 선정됐으며, 시는 공모사업과 별개로 신속하고 속도감 있는 사업의 추진을 위해, 추경에 실시설계 용역비 1억원을 우선 편성하고, 2025년부터 본격적인 공사 착공을 목표로 설계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광한서로와 함께 광한투원에서 공설시장으로 가는 고갯길 노선도 함께 포함돼 있어 광한투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공설시장으로 방문토록 보행투트를 연결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소방서, 벌 쏘임

사고 주의 당부

남원소방서(서장 김승현)는 지난 16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벌초 및 성묘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벌 쏘임 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벌 쏘임 대처 방법은 △어두운 옷 대신 흰색 계열의 긴 옷 착용 △향수, 화장품, 스프레이 사용 자제 △벌집 발견 시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다른 곳으로 이동 △벌집과 접촉 시 머리 부위 감싸고 신속하게 20m 이상 떨어지기 등이다.

벌에 쏘였을 경우 △세척 등을 이용해 벌침 제거 △세척 및 소독 후 얼음주머니를 이용해 찢짐 △올들러 린, 구토, 설사, 어지러움, 두드러기, 호흡곤란 등의 알레르기 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히 119에 신고 후 1시간 이내 병원치료 등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음단 형의 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치음현 광동루(廣東樓)라 불렸다고 한다. 광한루(廣漢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경유제한 때 불에 탄 것을 일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여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열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빛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궁궐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더 꾸며 주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라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문화재청 제공>